

이의리·네일 '변화무쌍 변화구'...선발진 '이상무'



KIA 타이거즈
스프링 캠프

김여울 기자

YouTube 광주일보

첫 실전 이의리 2이닝·구속 147km...네일 3이닝 무실점
KIA 6일 귀국...9일 NC전 시작 시범경기 10경기 소화

KIA 타이거즈의 '워밍업'이 비로 차질을 빚었다.

KIA가 4일 오키나와 킨구장에서 KT 위즈를 상대로 스프링캠프 마지막 연습경기를 치렀다. 이의리가 선발로 나서 캠프 첫 실전을 치렀고, '새 외국인 투수' 제임스 네일이 두 번째 연습경기에서 3이닝을 소화했다.

두 선수의 시험 가동이 성공적으로 이뤄졌지만 '비'로 실전 페이스가 늦춰진 게 아쉽다.

이날 경기는 6회말 KIA의 공격을 끝으로 일찍 마무리됐다. 비 예보가 있어서 원래 예정했던 오후 1시가 아닌 오전 11시에 경기를 시작했지만 폭우가 내리면서 9회까지 경기를 하지 못했다.

지난 1일 삼성 라이온즈와의 연습경기는 아예 비로 취소됐다. 앞서 호주 캔버라 캠프에서도 날씨 영향으로 라이브 일정이 미뤄지면서 자체 연습경기 한 경기도 소화하지 못했다.

아쉬움은 있지만 선발진 점검은 순조롭게 이뤄졌다.

3일 롯데전에서 양현종과 윤영철이 캠프 첫 연습경기에서 나와 컨디션을 체크했고, 4일에는 이의리가 가장 먼저 마운드에 올라 2이닝을 소화했다.

새로운 '외국인 원투펀치'의 준비 과정도 순조롭다.

2월 27일 일본 야쿠르트와의 연습경기에서 먼저

출격했던 크로우가 3일 두 번째 경기에서 3이닝을 소화했다. 역시 28일 롯데전에서 2이닝을 던지며 감을 잡은 네일은 이날 이닝을 늘려 3이닝을 던졌다.

이의리, 네일 모두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이의리는 첫 타자 배정대를 1루 땅볼로 처리하면 첫 실점을 열었다. 강백호에게 중전 안타는 맞았지만 2루로 향한 강백호가 중견수 최원준의 송구에 막혀 아웃됐다. 로하스에게 투 스트라이크를 만들던 이의리는 볼을 던지면서 볼넷. 이의리는 박병호에게 중전안타는 맞았지만, 장성우를 스탠딩 삼진으로 처리하면서 1회를 마무리했다.

2회에는 황재균과 천성호를 연달아 삼진으로 처리하는 등 이의리류 구위로 상대를 요리했다. 오윤석은 중견수 플라이로 잡으면서 32구로 등판을 끝낸 이의리는 작구 최고 구속 147km를 찍었다. 22개의 작구(140~147km)를 던지면서 구위를 점검한 이의리는 체인지업(3개·123~130km), 커브(3개·119~122km), 슬라이더(2개·130~133km)도 구사했다.

네일은 변화무쌍한 변화구로 상대의 방망이를 끌어들였다.

3이닝(39구) 2피안타 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한 그는 18개의 투심(144~149km)을 던졌다. 커터(10개·141~143km), 스위퍼(6개·135~137km), 체인지업(5개·138~143km)도 보여줬다.

스위퍼는 타자들도 인정하는 그의 특급 무기, 체

인지업은 이번 캠프에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구종이다.

네일은 "최근에 체인지업 그림을 바꿨다. 체인지업을 신경 쓰고 있고, 더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양한 변화구와 안정된 제구로 좋은 점수를 받은 네일은 '친화력'과 '경험'에서도 기대감을 키운다.

"파이팅 하자"고 외친 그는 "팀에 좋은 선수들이 많다. 나성범, 양현종, 최형우 등 동료들이 나를 팀원으로 반갑게 맞아줬다. 나도 팀원들의 이름을 외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름 외우기가 어려우면 별명을 외우고 있다. 편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또 "야구는 어디서나 같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다. 다른 팀 타자들 영상 보면서 성향 등을 공부하고 있다. 미국에서 피치 클락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익숙하다. 연습 많이 돼있기 때문에 KBO리그에 새로운 룰이 도입되는 걸 환영한다. 나의 투구 습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고 그 부분도 신경 쓰고 있다"고 새 리그 도전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편 스프링캠프 마지막 연습 경기를 치른 KIA는 5일 캠프 마지막 훈련을 한 뒤 6일 귀국한다. 8일 이범호 감독의 취임식을 갖는 KIA는 9일 NC 다이노스와의 원정경기를 시작으로 시범경기 10경기를 소화한다.

/wool@kwangju.co.kr



KIA 이의리가 4일 오키나와 킨구장에서 열린 KT와의 연습경기에서 공을 던지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프로야구 시청 '공짜는 없다'...5월부터 유료화

KBO, CJ ENM과 3년 1350억 계약...티빙 유료선 중계
월 최저 요금제 5500원...밈·옴잘 등 제약없이 활용 가능

인터넷과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유무선 기기로 프로야구를 무료로 관전하던 시대가 끝나고 유료 시대가 막을 올린다.

프로야구를 주관하는 한국야구위원회(KBO)는 CJ ENM과 2024~2026년 3년간 KBO 리그 유무선 중계방송권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CJ ENM의 동영상 스트리밍(OTT) 서비스인 티빙(TVING)을 통해 유무선 중계방송을 실시한다고 4일 발표했다.

계약 규모는 3년간 총 1350억원(연평균 450억원)으로 국내 프로 스포츠 사상 최대이며 종전 계약(5년간 1100억원·연평균 220억원)보다 연평균 금액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CJ ENM은 이번 계약으로 3년간 KBO리그 전 경기의 국내 유무선 중계방송과 중계방송권 재판매의 독점적 권리를 보유한다.

KBO 사무국은 지난 5월 CJ ENM을 유무선 중계방송권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해 50일간 협상

끝에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기존 통신·포털 연합이 유무선 중계권을 보유했을 때 프로야구 시청자들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에서 공짜로 경기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돈을 내고 프로야구 경기를 봐야 한다. 프로 스포츠 콘텐츠의 유료 시청은 더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대세가 됐다.

CJ ENM은 9일 개막하는 시범경기를 포함해 오는 23일 정규리그 개막전부터 4월 30일까지 티빙 서비스에 회원 가입한 이용자들이 대상으로 KBO 리그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무료 이벤트 기간이 끝나는 5월 1일부터는 티빙 이용권을 구매해야 정규리그와 포스트시즌 전 경기를 볼 수 있다.

KBO 사무국은 4일 출시되는 티빙의 광고형 스탠더드 요금제를 통해 최저가인 월 5500원으로 KBO리그 전 경기를 1080화소 이상의 화질로 즐길 수 있고, 티빙이 보유한 콘텐츠도 볼 수 있다고 소

개했다.

CJ ENM은 TV 중계권 방송사가 제작하지 않는 시범경기를 직접 제작하고 티빙을 통해 송출할 예정이며 생중계 서비스를 제외한 전체 경기 다시 보기, 전 경기 하이라이트, 주문형비디오(VOD), 문자 그래픽 중계 등의 서비스는 티빙에서 모두 무료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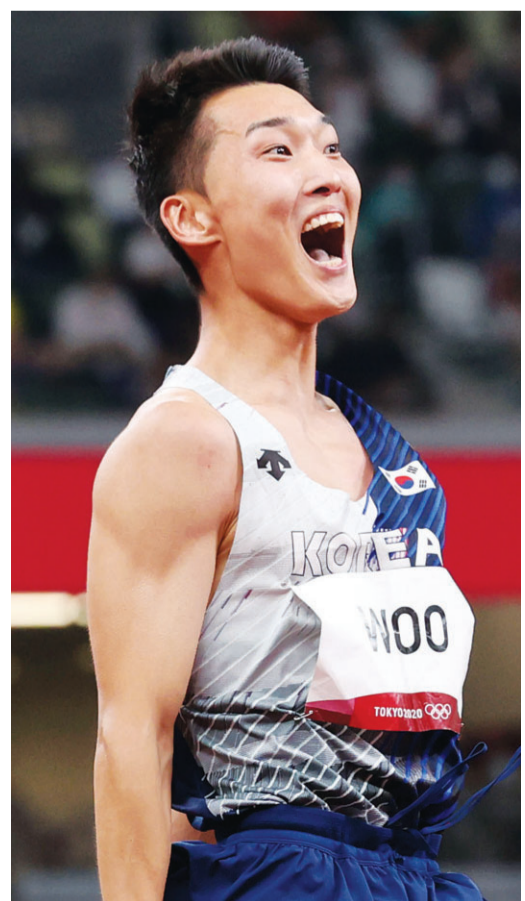
돈을 내고 경기를 보는 대신에 프로야구 콘텐츠 활용 폭은 훨씬 넓어졌다. KBO 사무국은 40초 미만 분량의 경기 쇼츠 영상을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모든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야구팬들이 각종 '밈'과 '옴잘'을 적극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KBO 사무국과 각 구단은 이를 통해 신규 야구팬들의 접근성이 좋아지는 등 인기 상승을 기대한다.

KBO 사무국은 지상파 방송 3사와 3년간 1620억원(연평균 540억원) 규모의 TV 중계방송권 계약을 3년 연장한 데 이어 사상 최대 규모의 유무선 중계권 계약으로 KBO리그 산업화의 기틀을 닦았다고 자평했다.

/연합뉴스

세계실내선수권 3위 이상혁 "이젠 올림픽 준비"



한국 공동 27위

2024년 실내 시즌을 '세계실내선수권 동메달'로 마무리한 '스마일 점퍼' 이상혁(27·용인시청·사진)이 이제 실외로 나와 파리 올림픽을 본격적으로 준비한다.

이상혁은 3일(현지시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의 에미리츠 아레나에서 열린 2024 세계실내육상선수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m28을 넘어 동메달 목에 걸었다.

2022년 베오그라드 대회에서 2m34를 넘어 우승한 이상혁은 대회 2연패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2회 연속 시상대에 올랐다.

경기 뒤 이상혁은 "연속 우승에 실패한 건 아쉽지만, 그래도 메달을 따게 돼 다행"이라며 "나보다 고생한 김도군 감독님과 매니저, 응원해주는 팬들께 감사하다. 재정비해서 실외 시즌을 잘 치르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파리 올림픽에서는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유럽 원정을 치른 김도군 용인시청 감독은 "숙제가 많다.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더 큰 도약을 예고했다.

이상혁은 올해 실내 시즌에서 4개 대회에 출전했다.

2월 11일 체코 후스토페체 대회에서 2m33으로 2위를 했고, 2월 14일 슬로바키아 반스카비스트리차 대회(2m32)와 21일 체코 네흐비즈디 대회(2m30)에서는 정상에 올랐다.

실내 시즌 마지막 대회인 세계실내선수권에서는 2m36을 넘는 해미시 커(뉴질랜드), 그리고 2m28의 같은 기록을 냈지만 2m24에서 이상혁보다 앞선 시기에 성공한 셸비 매규언(미국)에 이어 3위를 했다.

이상혁은 대회 주최 측으로부터 세계실내선수권 동메달 상금 1만 달러(약 1300만원)를 챙겼고, 대한육상연맹이 지급하는 경기력향상지원금 1000만 원도 받는다.

지난 1월 5일 유럽으로 출국한 이상혁은 두 달의 전지훈련을 마치고 5일 오후에 귀국해 실외 시즌을 대비한다.

이상혁은 신체 시계를 8월 11일 파리에서 열리는 올림픽 결승에 맞추고 훈련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국시간으로 4일 폐회한 세계실내선수권에서 한국의 메달 순위 공동 27위에 올랐다.

이상혁이 금메달을 딴 2022년 베오그라드 대회(공동 14위)보다는 떨어졌지만, 역대 두 번째로 '메달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역대 세계실내육상선수권대회에서 메달을 딴 한국 선수는 이상혁, 단 한 명뿐이다. /연합뉴스

MLB 김하성·이정후 시범경기 맹활약

김하성 투런포·이정후 4경기 연속 안타

올해 미국프로야구(MLB)에서 맹활약을 예고한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과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각각 시범경기 첫 홈런, 4경기 연속 안타를 터뜨렸다.

김하성은 4일 미국 애리조나주 피오리아 스타디움에서 시애틀 매리너스와 벌인 홈경기에서 5번 타자 유격수로 출전해 3타수 1안타를 치고 타점 2개를 수확했다.

안타가 바로 홈런이었다.

2회 땅볼, 4회 직선타로 물러난 김하성은 5-3으로 앞선 5회 무사 1루에서 좌중간 담을 훌쩍 넘어가는 시원한 2점 아치를 그렸다.

6경기 만에 짜릿한 손맛을 본 김하성은 시범경기에서 12타수 5안타(타율 0.417)를 치고 홈런 1개에 3타점을 기록 중이다.

김하성은 6회초 수비 때 교체됐다.

이정후의 매제인 샌디에이고의 불펜 투수 고우석은 12-3으로 앞선 7회 등판해 1이닝 동안 안타 2개와 볼넷 1개를 허용하고 1점을 줬다. 고우석의 평균자책점은 4.50이다.

고우석은 마운드에 오르자마자 우선상 3루타와 볼넷을 거꾸 내줬다. 풀 영에게 곧바로 중전

적시타를 맞아 위기가 이어졌으나 무사 1, 2루에서 세 타자를 삼진, 뜬공 2개로 요리해 더는 점수를 주지 않았다.

이정후는 애리조나주 굿이어 볼파크에서 열린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와의 방문 경기에서 1번 타자 중견수로 나와 2타수 1안타에 볼넷과 타점 1개씩을 보냈다.

1회 볼넷으로 걸어 나간 뒤 3번 타자 라몬데 웨이드 주니어의 홈런 때 득점한 이정후는 2회에는 투수 앞 땅볼로 숨을 골랐다.

이정후는 2루에서 우전 적시타를 날려 2루 주자를 홈으로 보냈다. 이정후는 곧바로 2루도 홈쳐 시범경기 첫 도루도 기록했다.

이정후는 6회초 대타에게 타석을 내주고 벤치로 들어왔다.

이정후의 시범경기 타율은 0.455(11타수 5안타)로 올랐다.

마이너리그 초정 선수로 시범경기에서 출전 중인 최지만(뉴욕 메츠)과 박효준(오를랜드 애슬레틱스)은 나란히 2타수 무안타로 침묵했다.

/연합뉴스